제 1 교시

국어 영역

이투스에듀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은 단어들의 연속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서란 개별적인 단어를 지각하는 것이 아닌,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을 연결하여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글은 개별적인 단어가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물리적 결합이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본디 지니고 있던 의미를 잃지 않고 그대로 다른 단어와 만나 개별 단어의 의미가 문장의 의미로 종합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실제로 단어는 다른 단어와 만나 문장을 형성하면서 문맥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단어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문장의 의미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단어가 글을 이루면서 문맥의 영향을 받아 화학적 결합을 한다면, 독자는 단어들이 연결되면서 만들어 내는 새로운 의미를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자에게 추론 능력이 필요하다. 추론 능력은 글 속에 제시된 단서를 기반으로 독자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메워 나가는 능력이다. 글은 독자가 메우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빈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의 적절한 의미를 찾는 일, 단어와 단어가 만나 새롭게 구성된 의미를 파악하는 일, 글쓴이가 생략한 정보를 찾아내는 일은 모두 독자의 몫이다. 이러한 빈칸 메우기로서의 독서 과정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독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며, 추론도 그중 하나이다.

독서에 필요한 추론 능력은 일반적인 사고 능력 중 하나이지만 글의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와 풍부한 배경지식이 요구된다. 배경지식은 어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는 경험과 지식으로, 글에 대한 이해 정도나 글을 읽는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독자는 배경지식을 적극적으로 독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의 내용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떠올리며 글의 내용 짐작하기,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에 관한 지식을 적용하여 글의 내용을 추리하기,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과 견주어 읽기 등이 ㉠읽기 중에 독자가 배경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빈칸 메우기로서의 독서를 위해 독자는 능동적인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다.
② 배경지식이 풍부하면 독자가 글의 의미를 추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③ 독서에 필요한 추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글을 읽는 속도를 향상해야 한다.
④ 독자는 글 속에 제시된 단서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한다.
⑤ 독서는 개별적인 단어를 단순히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들이 연결되면서 만들어 내는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다.

2. 다음은 학생이 독서 후 작성한 글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책을 읽다가 'ⓐ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문장에서 잠시 멈추었다. 사람이 책을 만든다는 것은 단어 뜻 그대로 해석할 수 있지만, ⓑ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의 의미는 선뜻 다가오지 않았다. 전후의 맥락을 바탕으로 문장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 앞 구절의 '사람'의 의미와 뒤 구절의 '사람'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앞 구절의 '사람'이 단순히 동물과 대비되는 인간 전체를 의미한다면, 뒤 구절의 '사람'은 그러한 인간 중에서 ⓓ 올바른 가치관이나 품격, 지식 등을 갖춘 성숙한 존재를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의 의미는 ⓔ '책을 읽으면 올바른 가치관과 품격을 지닌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① ⓐ는 단어와 단어의 물리적 결합만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문장으로 볼 수 있다.
② ⓑ의 이유는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개별적 의미가 문장 전체의 의미로 종합되었기 때문이다.
③ ⓒ에서 깨달은 바는 앞 구절의 '사람'과 뒤 구절의 '사람'이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④ ⓓ는 주어인 '책은'과 서술어인 '만든다' 사이에서 목적어인 '사람을'이 갖게 된 새로운 의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는 추론 과정을 통해 문장에서 생략된 필수 성분을 복원하며 빈칸 메우기로서의 독서를 한 결과, 파악한 의미로 볼 수 있다.

3. 윗글을 읽고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과 나의 생각을 비교해 가며 글을 읽어야겠군.
②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어야겠군.
③ 책의 내용과 관련된, 이전에 읽었던 책들의 내용을 떠올리며 글을 읽어야겠군.
④ 제목이나 목차 등을 훑어보면서 나의 경험에 비추어 책의 내용을 짐작해 보아야겠군.
⑤ 수업 시간에 배운 글의 구조와 내용 전개 방식 등에 관한 지식을 적용하여 내용을 예측하며 책을 읽어야겠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귀인(歸因)'이란 자신이나 타인의 특정한 행동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추론하는 과정이다. 귀인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관찰할 수 있는 행동에 원인을 귀속시켜 대상의 태도나 의도를 추론한다. 귀인 이론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 하이더는 행동의 원인을 어느 차원에서 찾는지에 따라 귀인을 내부 귀인과 외부 귀인으로 ⓐ구분했다. 내부 귀인은 행동의 원인을 성격, 기질 등의 내부적 차원에서 찾는 것이고, 외부 귀인은 사회 규범, 외부 환경, 상황 등의 외부적 차원에서 찾는 것이다.

이후 귀인 이론은 켈리의 공변 모형으로 발전했다. 공변 모형은 사람들이 행위자, 상황, 자극이라는 세 가지 항목이 변할 때 같은 행동이 관찰되는지를 고려해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것이다. 공변 모형에 따르면 원인의 귀속 방향은 합의성, 일관성, 특이성을 토대로 결정된다. '합의성'은 행동과 행위자라는 두 가지 변인의 공변, 즉 여러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많은 사람이 동일한 행동을 하면 합의성이 높고,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합의성이 낮다. '일관성'은 행동과 상황이라는 두 가지 변인의 공변, 즉 상황이나 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같은 행동을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행위자가 다른 상황, 다른 때에도 동일한 행동을 한다면 일관성이 높고, 다른 행동을 한다면 일관성이 낮다. '특이성'은 행동과 자극이라는 두 가지 변인의 공변, 즉 특정한 자극뿐만 아니라 다른 자극에 대해서도 행위자가 같은 행동을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행위자가 자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동을 한다면 특이성이 낮고, 특정한 한 가지 자극에만 그 행동을 한다면 특이성이 높다.

이처럼 공변 모형에서는 행위자, 상황, 자극 중 하나와 행동의 상관관계, 즉 두 가지의 변인을 통해 인과 관계를 추론한다. 따라서 추론을 위해 필요한 판단 기준은 세 항목 중 하나 이상이면 된다. 켈리는 합의성이 낮거나, 일관성이 높거나, 특이성이 낮을 때 내부 귀인을 하기가 더 쉽고, 반대일 경우 외부 귀인을 하기가 더 쉽다고 보았다. 가령 ㉮TV를 함께 시청 중인 아이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수연이와 친구들은 A 개그맨을 보고 웃는다. 그런데 수연이는 A 개그맨이 아닌 다른 개그맨들을 보고는 웃지 않는다. 이런 수연이의 행동이 관찰되었다면, 수연이의 행동에 대해 'A 개그맨은 굉장히 재미있는 개그맨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인과 관계를 추론할 때 필요한 두 가지 변인을 모두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이처럼 공변 모형을 적용하기 힘든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에 의존해 필요한 정보를 찾게 된다. 켈리는 경험에 의해 습득된, 어떤 원인들이 상호 작용해서 어떤 효과를 ⓑ초래한다는 신념을 인과적 도식이라고 했다. 인과적 도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다수의 필요 원인들' 도식으로, 이는 어떤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원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도식이다. 둘째는 '다수의 충분 원인들' 도식으로, 이는 어떤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 여러 원인들 중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경우에 대한 도식이다. 가령 육상 선수가 경기에서 우승했다면 선수의 체력, 많은 연습량, 승리에 대한 의지가 모두 필요하므로 전자로 인과 관계를 추론하고, 육상 선수가 약물 검사에서 적발되었다면 선수의 부정, 실수로 인한 복용 등 여러 요인 중 하나만 있어도 되므로 후자로 인과 관계를 추론하는 것이다.

(나)

귀인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관찰자가 타인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많은 경우 ⓒ편향된 판단을 하여 사실을 왜곡하곤 하는데, 이를 귀인 오류라고 한다. 대표적인 귀인 오류로는 기본적 귀인 오류가 있는데, 이는 타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 상황과 같은 외부 요인들의 영향은 과소평가하고, 성격과 같은 내부 요인들의 영향은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기본적 귀인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인지적 구두쇠'와 '현저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지적 구두쇠'란 에너지 소모를 줄이려는 인간의 인지적 습성을 가리키는 말로, 인간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급적 에너지를 보존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것은 정신적인 에너지에도 적용된다는 관점에서 나온 말이다. 이에 따르면 어떤 사건을 마주했을 때 인간은 별도의 사고와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 외부 귀인을 하는 대신, 눈앞의 명료한 개인적 요인에 의존하는 내부 귀인을 하게 된다. 즉,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고, 추론하고, 결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많은 사람이 정보 처리 능력의 한계로 인해 인지적 부담감을 ⓓ경감하는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현저성'은 행동의 원인을 찾을 때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판단의 공정성이 흐려진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약속에 늦었을 때는 교통 상황 등의 핑계를 대고, ㉠상대방이 약속에 늦었을 때는 상대방의 게으름을 탓하는 것처럼,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 귀인을 하고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귀인을 하는 '행위자-관찰자 편향'과도 관련된다. 즉, 현저하게 드러나 있는 행위자에 관한 정보는 쉽사리 받아들이고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상황 정보는 거의 무시하여 타인의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귀인 오류는 집단 차원에서도 발생한다. 기본적 귀인 오류가 집단 간 편견에 ⓔ결부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궁극적 귀인 오류라고 한다. 가령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집단의 사람들이 악행을 했다면 '원래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야.'라며 내부 귀인을 하고, ㉡선행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그건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을 거야.'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처럼 외부 귀인을 하는 것이다. 반대로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서 누군가 선행을 했다면 내부 귀인을 하고, 악행을 했다면 외부 귀인을 하게 된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달리 (나)는 화제에 대한 통념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② (나)와 달리 (가)는 화제에 대한 이론들을 평가하여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구체적인 예를 통해 화제와 관련된 추상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화제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제시한 후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제와 관련하여 서로 대비되는 견해를 제시한 후 그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5.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귀인은 관찰을 바탕으로 특정한 행동이 발생한 원인을 추론하는 사고 과정이다.
② 기본적 귀인 오류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③ 타인의 행동을 판단할 때 외부 귀인을 하는 것이 내부 귀인을 하는 것보다 인지적 부담감이 더 크다.
④ 켈리의 공변 모형은 행위자, 상황, 자극이라는 세 항목 중 두 가지의 변인을 통해 인과 관계를 추론하는 것이다.
⑤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지 못했을 때는 다수의 필요 원인들 도식 또는 다수의 충분 원인들 도식을 통해 인과 관계를 추론하기도 한다.

6. ㉮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수연이의 웃는 행동은 합의성이 [Ⓐ], 특이성이 [Ⓑ] 경우이므로 수연이의 웃는 행동에 대해서는 [Ⓒ] 귀인을 하게 된다.

	Ⓐ	Ⓑ	Ⓒ
①	높고	높은	외부
②	높고	높은	내부
③	높고	낮은	외부
④	낮고	높은	내부
⑤	낮고	낮은	외부

7. [켈리]의 관점에서 ㉠,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인지적 노력을 통해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고 있다.
② ㉠은 타인의 행동이 특이성이 높기 때문에 외부 귀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귀인을 하고 있다.
③ ㉡은 사회 규범이나 외부 환경이 개인의 선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④ ㉡은 합의성이 높은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선행을 성급하게 외부 귀인하고 있다.
⑤ ㉠과 ㉡은 모두 공변 모형을 적용하기 힘든 상황에서 공변 모형을 적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이다.

8. (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버스 안에서 청년 갑이 의자에 앉아 있고 갑의 옆에는 노인이 서 있었다. 갑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A] 이를 본 청년의 친구 을은 예전에도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던 갑의 행동을 기억하고 그의 성품이 좋지 않다며 속으로 비난했다. 한편 [B] 을도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지만, 그때 자신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갑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 [C] 갑이 자리를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은 버스를 탈 때 의자 모서리에 다리를 부딪혀 다리가 몹시 아팠기 때문이었다. [D] 갑의 옆에 서 있던 노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갑을 내려다보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배려하지 않는군.'이라고 생각하며 [E] 처음 본 청년인 갑의 태도를 못마땅해했다.

① [A] : (가)에 따르면, 갑의 성품에 대한 을의 판단은 행동과 상황의 공변에 주목하여 갑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내부 귀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② [B] : (나)에 따르면, 을이 갑의 행동을 판단할 때와는 달리 자신에 대해서는 외부 귀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행위자-관찰자 편향'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③ [C] : (나)에 따르면, 노인이 해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의 원인으로 갑의 성품을 지적하며 갑을 비난했다면 이는 외부 요인을 과소평가하고 내부 요인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④ [D] : (나)에 따르면, 노인이 갑을 보며 한 생각으로 미루어 볼 때 노인은 집단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궁극적 귀인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⑤ [E] : (가)에 따르면, 노인이 갑의 태도에 대해 못마땅해한 것은 '다수의 충분 원인들 도식'에 의해 갑의 행동의 인과 관계를 추측했기 때문이겠군.

9.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나누었다
② ⓑ : 불러온다는
③ ⓒ : 치우친
④ ⓓ : 줄이는
⑤ ⓔ : 잇닿아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제 재판이란 국제법에 의하여 설치된 재판 기관에서 국제법을 적용하여 행해지는 재판을 말한다. 국제 재판에는 중재 재판과 사법 재판이 있다.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 준칙 등 재판에 필요한 요소를 그때그때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한 중재 재판소에서 행하는 중재 재판과 달리, 사법 재판은 재판에 필요한 요소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상설 재판 기관에서 행하는 국제 재판이다.

사법 재판은 UN의 기관 중 하나인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데, 국제 사법 재판소가 처리할 수 있는 분쟁은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가 재판 개시에 대해 합의하는 모든 분쟁이다. 이때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한하지만 예외적으로 개인이 제소할 경우, 소속 국가를 통해 국가의 권리로서 제소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재판 개시를 합의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 임의적 재판, 특정 조약에 명시된 재판 합의 조항에 의거해 진행하는 재판을 ㉡ 의무적 재판이라고 한다. 의무적 재판은 국가 간에 발생하는 최소한의 법률적 분쟁만이라도 국제 재판에 회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정치적 분쟁이 아닌 법률적 분쟁만을 대상으로 한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통상적으로 15명이다. 이들 재판관의 국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재판관은 본국 정부의 지시를 받으면 안 된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칙은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이며, 재판 절차는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조약'의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따른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은 재판의 부탁, 즉 소의 제기로부터 시작된다. 소의 제기는 재판 개시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가능하다. 의무적 재판은 임의적 재판보다 그 빈도가 현저하게 낮지만 의무적 재판이 진행될 때는 당사자 일방의 서면 신청에 의해서도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의무적 재판은 특정 조약의 재판 합의 조항에 의거해 진행하는 재판이므로 재판 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소를 제기할 때는 당사자와 소를 제기하는 법적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소의 제기가 있은 다음에는 심리가 이루어진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심리는 서면 심리와 구두 심리로 구분되며 모든 심리 절차에서의 변론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면 심리는 당사자의 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진술서, 답변서 등을 재판소와 상대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절차이며, 구두 심리는 재판소가 증인, 대리인 등으로부터 구두 진술을 청취하는 절차이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은 단순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지며 판결에는 이유를 ⓐ 붙이고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까지 공포된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분쟁이 특정 조약과 관련되는 경우에 조약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제3국이 해당 소송에 참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판결은 해당 소송에 참가한 당사자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미치므로 해당 판결을 일반화하여 다른 분쟁에 적용할 수는 없다. 판결은 1심으로 종결되나 분쟁과 관련하여 재판소가 알지 못했던 객관적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재심이 인정되며, 재심 청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판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국제 사법 재판소의 서면 심리 절차에서의 당사국의 변론은 구두 심리 절차에서와 달리 공개되지 않는다.
②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재판 준칙이 정해지는 재판일지라도 국제법을 적용하여 행해진다.
③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은 재판에 필요한 요소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재판이다.
④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모두 국적이 서로 다르다.
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다.

11. ㉠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행해지는 재판은 ㉡보다 ㉠이 더 많다.
② 국가 간에 일어난 정치적 분쟁의 경우 ㉡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개인이 소속 국가를 통해 국가의 권리로서 제소하면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재판 개시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제 분쟁은 ㉠이나 ㉡의 대상이 아니다.
⑤ 국제 사법 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법적 이유가 불명확할 때는 ㉡이 아닌 ㉠을 제기해야 한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A국은 1900년에 맺은 ◇◇ 조약을 내세워 B국이 점유하고 있는 ○○섬에 군함을 파견하였다. 이후 A국과 B국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여 15명의 재판관이 참석하는 국제 사법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하자.

(가) ○○섬에 인접한 C국은 ○○섬의 영유권이 자국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A국과 B국이 당사자가 되어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나) 국제 사법 재판소는 B국이 ○○섬을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어 B국의 영유권이 인정되므로 A국은 ○○섬에서 군함을 철수하라고 판결하였다.

① (가) : C국이 ◇◇ 조약의 당사자이며 ○○섬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임이 입증되면 국제 사법 재판소는 C국의 참가 의사를 수용할 수 있다.
② (가) : C국이 이 소송에 참가한 뒤 국제 사법 재판소가 ○○섬이 B국의 소유라고 판결하였다면 A국은 독자적으로 B국에 대해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③ (나) : A국이 ◇◇ 조약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한다면 재심이 인정될 수 있다.
④ (나) : 이 판결이 재판관 9명이 동의한 결과라면 A국은 국제 사법 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진술을 청취하고 심리 절차를 다시 진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⑤ (나) : 이 판결이 재판 준칙과 재판 절차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섬에 대한 다른 영유권 분쟁에도 오래도록 섬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의 소유를 인정한다는 것을 일반적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다.

13.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동생은 선생님께 보낼 편지에 우표를 붙였다.
② 그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다.
③ 그는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들에게 가정 교사를 붙여 주었다.
④ 나는 이렇게 땅에 발을 붙이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⑤ 그녀가 싹싹하게 대해 줘서 내가 이 일에 정을 붙일 수 있었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혈액은 조직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물질대사로 생긴 이산화 탄소와 노폐물을 수거하는 역할을 한다. 혈액은 심장에서 나와 대동맥, 동맥, 소동맥을 거쳐 모세 혈관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조직 세포와 물질 교환을 한 다음 다시 소정맥, 정맥, 대정맥을 거쳐 심장으로 돌아오는 체순환을 한다.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액 순환이 원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혈압이다.

혈압은 혈액이 혈관 벽에 가하는 압력으로, 팔꿈치 위쪽의 동맥에서 측정한 값을 주로 활용한다. 동맥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내보낼 때 최대치에 이르고 심장이 이완하면서 혈액을 내보내지 않을 때 최소치가 된다. 이 두 혈압의 차이를 맥압이라고 한다. 평상시 심장이 한 번 박동할 때 수축기는 1/3, 이완기는 2/3의 시간을 차지하므로, 수축기 혈압의 1/3과 이완기 혈압의 2/3를 더한 값을 평균 동맥압이라 하고 이것을 흔히 혈압으로 간주한다.

심장이 단위 시간 동안 수축하면서 뿜어내는 혈액량을 심박출량이라고 한다. 체순환에서 단위 시간 동안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내보내는 혈액의 양과 대정맥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의 양은 같다. 그런데 혈액도 혈관을 흐르는 유체의 일종이므로 단위 시간 동안 혈관의 두 지점 사이를 흐르는 혈액의 유량인 혈류량은 푸아죄유의 법칙에 따른다. 푸아죄유의 법칙은 관을 흐르는 점성 유체의 유량은 관 양 끝의 압력 차와 비례하고, 관 내부의 단면의 반지름의 네 제곱과도 비례하지만, 관의 길이에는 반비례한다는 법칙이다. 이 법칙에 따르면 혈류량은 혈관 양 끝의 혈압 차에는 비례하고, 혈관 저항에는 반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혈관 양 끝의 혈압 차는 대동맥의 혈압과 대정맥의 혈압 차를 말하는데, 대정맥의 혈압은 거의 0에 수렴하므로 결국 혈압 차는 평균 동맥압과 같다. 그리고 혈관 저항은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값을 말하는데, 혈관의 길이가 길수록, 혈관 내부의 단면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혈액의 점도가 높을수록 그 값이 커진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평균 동맥압, 즉 혈압은 체순환에서의 혈류량과 전체 혈관 저항의 곱으로 결정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한편 혈압은 혈관 응력과도 관련이 있다. 혈관 응력은 혈관 벽에서 원주 방향으로 가해지는 단위 면적당 힘을 말한다. 라플라스의 법칙에 따르면 혈관 응력은 혈압과 혈관 내부의 단면의 반지름에는 비례하고, 혈관 벽의 두께에는 반비례한다. 동맥은 혈관 중에서 혈관 내부의 단면의 반지름도 가장 크고 혈압도 가장 높지만 혈관 벽의 두께가 약 2㎜ 정도로 두꺼운 편이어서 높은 혈압에도 혈관이 잘 견딜 수 있다. 반면 모세 혈관은 벽의 두께가 약 0.001㎜로 혈관 중에서 가장 얇고 혈압도 정맥에 비해 높지만, 혈관 내부의 단면의 반지름이 동맥의 10,000분의 1, 정맥의 2,000분의 1에 불과하므로 혈관이 혈압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이다.

급격한 혈압의 변화는 생명 유지를 어렵게 하므로 우리 몸은 특정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 스스로 혈압을 조절한다. 가령, ㉮어떤 이유로 인해 혈압이 낮아지면 신장에서 레닌이라는 효소가 분비되어 일련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 앤지오텐신 Ⅱ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진다. 앤지오텐신 Ⅱ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한편 부신 피질에서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한다. 이 호르몬은 나트륨과 수분을 혈액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혈액 내 혈장의 양을 증가시켜 혈액의 액상 성분의 양을 늘림으로써 혈압의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혈압과 혈관 벽의 두께가 일정한 상태에서 혈관 내부의 단면의 반지름이 커지면, 혈관에 작용하는 응력도 커진다.
② 대동맥의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은 대정맥의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과 항상 동일하다.
③ 체순환 과정에서 혈액이 조직 세포와 물질 교환을 하는 곳은 모세 혈관이다.
④ 혈관 벽의 두께가 두꺼운 혈관일수록 혈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크다.
⑤ 알도스테론은 혈액 내의 혈장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15.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현우의 혈압을 측정한 결과 ㉠수축기 혈압은 120㎜Hg, ㉡이완기 혈압은 75㎜Hg이었다. 이에 따라 의사는 현우의 혈압이 정상 혈압 범위에 있다고 진단하였다.

① 운동 직후 혈류량이 증가하였을 때 ㉠을 다시 측정하면 120㎜Hg보다 낮게 측정되겠군.
② ㉡이 측정될 때는 정맥에서 들어온 혈액보다 동맥으로 나가는 혈액이 더 많겠군.
③ 현우의 동맥에 가해지는 응력은 ㉠일 때보다 ㉡일 때 더 크겠군.
④ 의사는 ㉠과 ㉡의 측정값을 바탕으로 현우의 평균 동맥압이 90㎜Hg라고 파악했겠군.
⑤ 현우의 혈압을 다시 측정했더니 ㉡은 그대로인데 ㉠이 낮아졌다면, 현우의 맥압은 45㎜Hg보다 더 커지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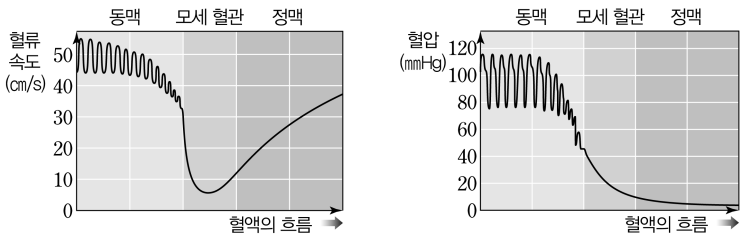
16. 윗글을 참고할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심장 근육이 강화되어 혈액의 심박출량이 증가한 경우
② 혈관 내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 단면적이 좁아진 경우
③ 지방 조직이 증가하여 신체를 구성하는 모세 혈관의 길이가 크게 증가한 경우
④ 신장에서 레닌 효소의 분비 기능에 이상이 생겨 혈관 수축이 과도해진 경우
⑤ 혈액의 점도를 높이는 적혈구와 헤모글로빈이 감소하여 빈혈이 발생한 경우

17.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인체의 혈관은 ⓐ 동맥, ⓑ 모세 혈관, ⓒ 정맥 등 여러 층위로 구성된다. 순환계에서 혈류 속도(V)는 혈류량(Q)과 혈류가 지나는 지점의 총 단면적(A)에 의해 결정되는데, $V=\frac{Q}{A}$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혈관의 모든 층위에서 혈류량은 같으므로 혈류 속도는 주로 혈류가 지나는 각 층위의 총 단면적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혈류 속도(V)는 혈압(P)과 혈관 저항(R)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V=\frac{P}{R}$로 나타낼 수 있다.



[A] [B]

① [A]로 보아 혈관의 총 단면적은 ⓑ가 ⓒ보다 더 크겠군.
② [A]에서 ⓒ의 혈류 속도가 높아지더라도 ⓒ의 혈류량은 일정하겠군.
③ [B]로 보아 혈관 저항은 ⓒ보다 ⓑ가 더 작겠군.
④ [A]에서 혈관 저항의 변화 없이 ⓐ의 평균 속도만 증가하였다면 [B]에서 ⓐ의 평균 동맥압도 상승하겠군.
⑤ [B]에서 ⓐ의 혈압이 파동 형태로 변동하는 것은 [A]에서 ⓐ의 혈류 속도가 파동 형태로 변동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군.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관찰사의 아들과 기생 자란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만 관찰사의 임기 만료로 도령은 서울로 떠나고 자란만 평양에 남는다. 서울로 온 도령은 과거 준비를 위해 절에 들어가지만 자란을 잊지 못해 다시 평양을 찾는다. 하지만 이미 신임 관찰사 아들의 총애를 받게 된 자란을 만날 수 없었다. 도령은 자란을 만나기 위해 자신이 예전에 도움을 줬던 아전의 집에 찾아가고, 눈 치우는 인부로 위장해 신임 관찰사의 집에 들어간다.

도령이 그 꾀를 따라 이른 아침에 인부들과 함께 산속 ㉠ 정자로 들어가 비를 들고 뜰 앞의 눈을 쓸었다. 신임 관찰사의 아들은 창을 열고 문 곁에 기대앉아 있었고, 자란은 방 안에 있어 보이지 않았다. 다른 인부들은 모두 건장한 사내들이어서 눈 치우는 일을 거뜬히 해내고 있었지만, 유독 도령만은 비질하는 것이 서툴러서 일하는 모습이 남들과 썩 달랐다. 관찰사 아들이 도령의 일하는 꼴을 보고는 깔깔 웃더니 자란을 불러 저 밖에 저것 좀 보라고 했다.

자란이 방 안에 있다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와 앞마루에 섰다. 도령은 쓰고 있던 벙거지의 앞쪽 챙을 걷어 올리고 자란을 올려다보았다. 자란 역시 도령을 한참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돌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는 그 뒤로 다시 나오지 않았다. 도령은 풀이 죽은 채 슬픔에 잠겨 아전의 집으로 돌아왔다.

자란은 본래 총명한 사람인지라, 단번에 그 사람이 도령임을 알아차렸다. 자란이 말없이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자 관찰사의 아들이 이상히 여겨 왜 그러냐고 물었다. 자란은 계속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가 관찰사 아들이 거듭해서 간절히 이유를 묻자 비로소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천한 사람이온데, 어쩌다 서방님의 넘치는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비단 이불을 덮게 하고 낮에는 진귀한 음식을 먹이며 저를 잠시도 집에 가지 못하게 하신 지가 벌써 서너 달이 되었네요. 저는 지금 지극한 행복을 누리고 있으니 원망하는 마음이라곤 조금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답니다. 저는 집이 가난하고 어미가 늙어, 아버지 제삿날만 돌아오면 집에 있으면서 관아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빌려다가 간신히 몇 그릇 음식을 마련해 제사를 올리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곳에 갇힌 몸이 되었으니, 내일이 아버지 기일(忌日)이건만 집에는 노모 혼자뿐이라 필시 제사 음식을 마련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히 슬퍼져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거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어요."

관찰사 아들은 자란에게 빠진 지 이미 오래된 터라, 자란의 말을 듣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 조금도 의심치 않고 이렇게 말했다.

"그런 사정이 있으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고는 즉시 제사 음식을 성대하게 갖추어 자란에게 주며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라고 했다.

자란이 허둥지둥 ㉡ 집으로 돌아와 어미에게 말했다.

"전관 사또 아드님이 오신 걸 봤어요. 분명 우리 집에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시니 대체 어디로 가신 거죠?"

어미가 말했다.

"그 도련님이 과연 너를 보겠다고 먼 길을 걸어 며칠 전 우리 집에 오긴 했었지. 하지만 네가 이미 관아에 묶인 몸이라 만날 길이 없다고 말해 줬더니 그냥 제 발로 돌아가더구나.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야 내가 어떻게 알겠니?"

(중략)

"이 성안에 도련님이 머물 만한 곳이 없으니, 필시 그 아전의 집에 계실 거야!"

곧바로 일어나 ㉢ 아전의 집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그곳에 도령이 있지 않은가.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

이윽고 자란은 도령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 술과 안주를 성대하게 마련해 올렸다. 밤이 되자 자란이 도령에게 말했다.

"내일이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테니, 어쩌면 좋죠?"

두 사람이 마침내 은밀히 의논하여 도망갈 계획을 세웠다. 자란은 옷상자에서 비단옷을 꺼낸 다음 옷 속에 든 솜을 모두 끄집어내고, 또 약간의 금과 진주, 비녀와 패물 등 가벼운 보배들을 꺼내어 각각 보따리를 싸 두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자란의 어미가 깊이 잠든 틈을 타 보따리를 이고 지고 몰래 달아났다. 양덕과 맹산 사이의 깊은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서는 ㉣ 시골 촌가에 몸을 의탁했다.

처음에는 그 집 머슴살이를 했는데, 도령은 천한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하지만 자란이 베 짜기와 바느질을 잘했으므로 그 덕분에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얼마 뒤에는 마

을에 몇 칸짜리 초가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 자란이 베 짜기와 바느질을 부지런히 하며 밤낮으로 쉬지 않았고, 또 지니고 온 옷가지와 패물을 팔아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하니 살림이 아주 궁핍하지는 않았다. 자란은 또 이웃과도 잘 지내며 환심을 샀기에, 사방 이웃들이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며 도움을 주었으므로 마침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예전에 도령이 ㉤절을 뛰쳐나왔을 때의 일이다. 절에서 함께 공부하던 도령의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 도령이 보이지 않자 깜짝 놀랐다. 친구들은 즉시 승려들과 함께 온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도령의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도령의 집에 소식이 전해지자 온 집안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랐다. 많은 하인들을 풀어 절 부근 수십 리를 며칠 동안 샅샅이 뒤져 보았지만 역시 그 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 모두들 이렇게 말했다.

"요사한 여우에게 홀려서 죽었거나 호랑이 밥이 된 게 틀림없다."

결국 도령의 상을 치르고 빈 무덤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

신임 관찰사의 아들은 자란이 달아난 뒤 서윤*으로 하여금 자란의 어미와 친척을 모두 가두고 자란의 행방을 쫓게 했으나, 몇 달이 지나도 종적을 알 수 없자 포기하고 말았다.

자란은 도령과 자리를 잡고 살아가던 어느 날 도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재상 가문의 외아들이건만 한낱 기생에게 빠져 부모를 버리고 달아나 외진 산골에 숨어 살며 집에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니, 이보다 더 큰 불효는 없을 것이며 이보다 나쁜 행실은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늙어 죽을 수는 없을 일이요, 그렇다고 지금 얼굴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어요. 당신은 앞으로 어쩌실 작정인가요?"

도령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다.

"나도 그게 걱정이지만, 어떡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자란이 말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그런대로 과거의 허물을 덮는 동시에 새로운 공을 이룰 수 있어, 위로는 부모님을 다시 모실 수 있고 아래로는 세상에 나설 수 있는 길인데, 당신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령이 물었다. / "대체 어떤 방법이오?"

자란이 말했다.

"오직 과거에 급제해서 이름을 떨치는 길 한 가지뿐이어요. 더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도령이 몹시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 "참으로 좋은 계책이오."

- 임방, 「옥소선」 -

* 서윤 : 평안 관찰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종사품의 관리.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사를 인용하여 인물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③ 역전적 구성을 통해 이전에 일어난 일의 정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 인물의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⑤ 공간적 배경의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 변화 양상을 암시하고 있다.

1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도령의 집안사람들은 도령이 죽었다고 여기고 도령의 제사를 지냈다.
② 신임 관찰사의 아들은 눈을 쓸고 있는 도령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자란을 불렀다.
③ 도령은 자란의 어머니를 만난 후에 자란이 여전히 자신을 잊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④ 자란은 정자에서 도령을 만나기 전부터 도령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⑤ 신임 관찰사의 아들은 자란의 어머니가 자란의 도망을 도와준 것을 알고는 자란의 어머니를 가두었다.

2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은 자란과 도령이 말없이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공간이다.
② ㉡은 자란이 도령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향한 공간이다.
③ ㉢은 자란과 도령의 극적 재회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④ ㉣은 자란과 도령이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공간이다.
⑤ ㉤은 도령이 자란과의 이별로 아픈 마음을 달래고자 찾아간 공간이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옥소선」에는 애정 지상주의와 여성 지위 상승의 화소가 적절히 결합되어 있다. 전자는 남녀 주인공 모두 사랑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신분을 초월해 사랑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자는 여성 주인공이 사랑을 성취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택한 행동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도령이 감정에 이끌려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현실적인 문제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자란은 사랑의 성취를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현실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강한 생활력을 보여 준다. 이는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높아졌던 조선 후기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① 신임 관찰사의 아들을 속이면서까지 도령을 다시 만나려고 했다는 점에서, 자란은 사랑의 성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인으로 볼 수 있겠군.
② 과거 준비를 하던 절에서 뛰쳐나와 자란을 찾아왔다는 점에서, 도령은 감정에 이끌려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인물로 볼 수 있겠군.
③ 가족과 그들에게 주어진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몰래 달아났다는 점에서, 자란과 도령은 사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애정 지상주의적인 인물들로 볼 수 있겠군.
④ 천한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도령의 모습과 베 짜기와 바느질로 초가집을 마련한 자란의 모습이 대비되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자란의 생활력이 부각되고 있군.
⑤ 산골에서 늙어 죽을 수 없다며 도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도령에게 과거에 급제할 것을 요구하는 자란의 모습은,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높아졌던 조선 후기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겠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옷가슴 헤쳐 내어 광한전에 돌아앉아
마음에 먹은 뜻을 다 사뢰려 하였더니
심술궂은 뜬구름이 어디서 와 가리었나
천지 회맹(天地晦盲)*하여 백물(百物)을 다 못 보니
상하 사방에 갈 길을 모르겠다
요잠 반각(遙岑半角)*에 옛 빛이 비치는 듯
운간에 나왔더니 떼구름 미쳐 나니
희미한 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
중문을 닫아 놓고 정반(庭畔)에 따로 서서
㉠ 매화 한 가지 계수나무 그림자인가 돌아보니
처량한 암향이 날 따라 근심한다
소렴(疏簾)*을 지워 놓고 동방(洞房)에 혼자 앉아
금작경* 닦아 내어 벽 위에 걸어 두니
제 몸만 밝히고 남 비칠 줄 모른다
단단 환선(團團紈扇)*으로 긴 바람 부쳐 내어
이 구름 다 걷고자 기원 녹죽(淇園綠竹)*으로
일천 장 비를 매어 **저 구름 다 쓸고자**
장공(長空)은 만 리요 이 몸은 진토(塵土)*니
맹세한 이내 뜻이 헤나니 허사로다
가뜩 근심 많은데 긴 밤은 어떠한가
뒤척이며 잠 못 이뤄 다시곰 생각하니
영허 소장(盈虛消長)*이 천지도 무궁하니
풍운(風雲)이 변화한들 본색(本色)이 어디 가료
우리도 단심(丹心)을 지켜서 명월(明月) 볼 날 기다리노라

- 최현, 「명월음」 -

* 천지 회맹 : 하늘과 땅이 캄캄하여 눈이 안 보임.
* 요잠 반각 : 멀리 아득히 보이는 우뚝 솟은 산봉우리의 반쪽 끝.
* 소렴 : 성기게 엮은 발.
* 금작경 : 황금까치를 조각한 거울.
* 단단 환선 : 얇은 비단으로 만든 부채.
* 기원 녹죽 : 중국 허난성 기현에 있는 정원에서 나는 푸른 대나무.
* 진토 : 티끌과 먼지.
* 영허 소장 : 달이 차고 기울며, 초목이 자라고 스러짐.

(나)

청산(靑山)은 무슨 일로 무지(無知)한 나와 같으며
녹수(綠水)는 어찌하여 무심(無心)한 나와 같으뇨
무지(無知)타 웃지 마라 요산요수(樂山樂水)할까 하노라
<제2장>

홍진(紅塵)에 절교(絶交)하고 백운(白雲)으로 위우(爲友)하여
녹수청산(綠水靑山)에 시름없이 늙어 가니
이 중의 무한지락(無限之樂)을 헌사할까* 두려워라 <제3장>

인간(人間)에 벗 있단 말인가 나는 알기 싫어한다
물외(物外)에 벗 없단 말인가 나는 알기 즐거워한다
싫거나 즐겁거나 내 분(分)인가 하노라 <제6장>

유정(有情)코 무심(無心)할 손 아마도 풍진(風塵) 붕우(朋友)
무심(無心)코 유정(有情)할 손 아마도 강호 구로(鷗鷺)*
이제야 작비금시(昨非今是)를 깨달았는가 하노라 <제8장>

- 안서우, 「유원십이곡」 -

* 헌사할까 : 야단스럽게 할까.
* 구로 : 갈매기와 백로.

(다)

잎사귀가 크고 화려한 나무들이 겨울 몇 달 동안 옷을 벗고 서 있는 모습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이즈음 서울 시내에서 보기 힘든 광경이 되었지만, 어쩌다 덕수궁이나 비원*에 들를 때 알맞게 마른 몸을 그대로 드러낸 채 편안하게 서 있는 나무를 보면 생략할 것은 생략한 어떤 엄격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준다. 그 엄격함에 끌려 박수근 같은 화가는 여름 나무도 겨울나무처럼 그렸을 것이다.

활엽수 가운데서도 느티와 버들의 누드는 마음을 끈다. 빗자루처럼 멋없이 박혀 있는 겨울 포플러나 집념 투성이의 가지를 사방으로 내밀고 있는 벚나무의 나체는 우리가 쉽게 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지 않는다. 가로수이기 때문이겠지만 여기저기 골절상을 입은 플라타너스의 맨몸도 마찬가지이다.

느티는 의젓하고 깊다. 따로따로 서 있되 조바심이 느껴지지 않는, 편안히 서 있는 겨울 느티들을 보노라면 나무의 어떤 원형(原型) 같은 것이 느껴진다. 우리의 상상이나 꿈속에 숨 쉬는 나무들, 그들 뒤에 겨울 느티들이 서 있다. 형태도 형태지만 그 색감이란! 그것도 띄엄띄엄 눈을 쓰고 저녁에 배경으로 서 있을 때의 질감이란!

버들의 벗은 몸은 모던하다. 다른 나무들이 모두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는데 버들은 대지를 향해 가는 가지들을 늘어뜨린다. 잘 빗은 긴 머리카락으로 둥글게 몸을 가린 여자의 몸이다. 덕수궁에 있는 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로수로 서 있는 버들도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버들이 가로수로 택해진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을씨년스러운 서울의 겨울 거리를 얼마나 부드럽게 해 주는가.

그러나 같은 겨울나무들도 서 있는 곳에 따라 모습이 다르다. 봄여름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겨울 덕수궁에서 보는 나무와 비원에서 보는 나무는 다른 것이다. 비원의 나무가 넉넉하고 편안히 서 있는 데 반해 덕수궁의 나무는 어쩐지 뒤틀리고 불안하게 서 있다. 주위의 소음 때문이 아니면 공기 오염 때문일 것이다. 명동 구석에 박혀 있는 나무의 몰골은 말이 아니다.

잎을 두르고 있을 때는 비슷하던 것이 이처럼 달라진다.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각기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는 별로 구별이 되지 않지만 일단 일을 그치고 ㉡ 겨울나무처럼 쉴 때 차이는 드러난다. 정신이 서 있는 곳에 따라 모습이 정해지는 것이다. 내가 쉴 때, 내 분위기는 어디 있는 나무인가? 혹은 비원의 나무인가, 덕수궁에 있는 나무인가? 혹은 명동이나 충무로 구석에 궁상맞게 서 있는 나무는 아닌가?

- 황동규, 「겨울나무」 -

* 비원 : 서울 창덕궁 북쪽 울안에 있는 최대의 궁원.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정의 상황을 제시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③ 공간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④ 계절의 변화를 묘사하여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려는 뜻을 표출하고 있다.
⑤ 대조적인 성격의 소재를 활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3.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의 화자는 '광한전'에 있는 대상에게 자신의 '마음에 먹은 뜻'을 전하고 싶어 한다.
② (나)의 '구로'는 '붕우'와 달리 화자가 벗으로 삼고자 하는 대상이다.
③ (가)의 '모르겠다'에는 (나)의 '무지한'과 달리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답답한 심정이 담겨 있다.
④ (나)의 '백운'은 (가)의 '풍운'과 달리 외형은 변하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화자가 인식하는 대상이다.
⑤ (가)의 '단심'과 (나)의 '무한지락'은 모두 화자가 앞으로도 지니고 싶어 하는 마음 상태이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조선 시대의 선비들은 세상에 나아가 올바른 뜻을 펼치는 삶을 살고자 하기도 했고, 세속과 거리를 둔 채 자연에서 수양하는 삶을 살고자 하기도 했다. (가)의 작가는 임진왜란의 발발로 입신의 꿈이 좌절되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의병을 일으켰던 선비로, (가)에는 하루속히 전란이 끝나 '명월'로 상징되는 임금의 선정이 다시금 나라 곳곳에 이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다. (나)의 작가는 관직에서 은퇴한 선비로, (나)에는 세속과 거리를 둔 채 자연에서 은일하는 삶을 살면서 얻게 된 깨달음과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① (가)에서 '심술궂은 뜬구름이 어디서 와 가리었나'라고 한 것은, 소망을 실현할 수 없는 현실에서 오는 탄식을 드러낸 것이겠군.
② (가)에서 '이 구름 다 걷고', '저 구름 다 쓸고자'라고 한 것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싶다는 염원을 드러낸 것이겠군.
③ (가)에서 '영허 소장이 천지도 무궁하'다고 한 것은, 임금의 선정이 다시 나라 곳곳에 이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현실 인식을 드러낸 것이겠군.
④ (나)에서 '싫거나 즐겁거나 내 분인가 하노라'라고 한 것은, 자연에서 은일하며 사는 삶에 대한 만족스러운 심정을 드러낸 것이겠군.
⑤ (나)에서 '이제야 작비금시를 깨달았'다고 한 것은, 자연에서 살고 나서야 자연에서 사는 삶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25.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는 대상이고, ㉡은 글쓴이에게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대상이다.
② ㉠은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자연물이고, ㉡은 글쓴이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자연물이다.
③ ㉠은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상징하고, ㉡은 글쓴이가 경외하는 가치를 상징한다.
④ ㉠은 화자의 괴로운 감정을 심화하고, ㉡은 글쓴이의 쓸쓸한 감정을 심화한다.
⑤ ㉠은 화자에게 슬픔을 주는 존재이고, ㉡은 글쓴이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이다.

26. (다)의 글쓴이가 지닌 생각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겨울 플라타너스는 사람들에게 친근한 분위기를 주지 않는다.
② 일하고 있을 때보다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정신이 더 안정된다.
③ 겨울 느티는 포플러나 벚나무와 달리 편안하고 의젓한 느낌을 준다.
④ 겨울에 가로수로 서 있는 버들은 을씨년스러운 거리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 준다.
⑤ 덕수궁의 나무와 비원의 나무는 봄여름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겨울이 되면 서로 다른 인상을 준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언제부턴가 '그녀'의 집 이층 빈방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녀'는 두려워 이층에 올라가지 못하다가,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쌀집 여자를 만난다.

"이놈의 동네는 큰일이라구요. 눈만 뜨면 맨날 여기저기서 강도 사건이 터졌다는 통에 하루라도 맘 편히 잘 날이 없으니 원 쯔쯧."

"또 누구 집에 도둑이 들었대요?"

그녀는 내심 움찔 놀랐다. 여자가 땅바닥에 퉤 침을 뱉었고 덕택에 그녀의 얼굴로 침방울이 날아왔다.

간밤에 쌀가게 맞은편의 양옥집에 강도가 들어와 현금이며 보석을 몽땅 털어 갔다는 거였다. 그 부근은 부촌으로 시내까지 널리 알려진 호화 주택가였다. 칼을 들이대며 꼼짝을 못 하게 하는 통에 주인 남자도 미처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하였다.

"오죽허면 집집마다 돈다발을 꾸려 놓고 강도가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겠수."

"어머나, 세상에."

그녀도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다. 도둑이 돈을 요구했다가 만일 내놓지 못하면 사람을 찌르고 도망칠지도 모르는 일. 그러니 귀한 몸이라도 다치지 않으려면 할 수 없이 선뜻 집어 줄 삼사십만 원 정도의 현금을 미리미리 준비해 둔다는 기막힌 얘기였다. 이른바 인명 피해 방지금이라나.

파출소가 멀지 않고 골목엔 방범 초소가 세워졌지만 좀체 도둑은 줄지 않은 모양이었다. 하긴 외양에 써 붙이고 다니는 도둑이 없고 경찰과 방범대원이 집집의 마당이며 현관마다에 한 명씩 보초를 서지 않는 바에야 완전한 도난 방지책이란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요즘의 도둑은 그만큼 대담하고도 교활하다고들 했다.

싸전 앞에서 두 여자는 헤어졌다.

그녀는 죄지은 사람마냥 쌀가게 맞은편의 **우람한 양옥**을 흘낏 곁눈질하며 천천히 발을 떼어 놓았다.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담장 너머 정원의 사철나무가 무성한 가지를 길 쪽으로 뻗고 있었다. 육중한 철대문이 지나치게 화려함을 과시하는 듯한 그런 부류의 집들을 볼 때마다 으레 느끼곤 하던 **질투심**이랄까, **아니꼬움** 대신에 오늘 그녀는 왠지 **은밀한 죄책감**마저 느껴야 했다. 마치 자신이 어젯밤 그 붉은 벽돌담을 기어 올라가는 강도를 직접 목격하고서도 모르는 척 외면해 버리기나 했던 것 같은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들었다. 부끄러움, 부끄러움.

문득 그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떤 어마어마한 범죄에 가담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으로 움찔 몸을 떨었다. 어젯밤 붉은 벽돌담 집을 털었다는 강도가 어쩌면 진작부터 그녀의 이층에 스며들어 와 잠시 머물렀다 가곤 하는 그 정체불명의 괴한일지도 모른다는 직감 때문이었다.

그러고 보니, 놈은 그녀의 이층에서 늘 적당한 시간이 되기까지 느긋하게 기다리곤 하는 것일 게다. 방범대원의 순찰이 뜸해지고 사람들이 대부분 깊은 잠에 떨어져 있을 때가 되어야 비로소 서서히 행동 개시를 할 속셈으로 그 밤에 털 집을 선택하고, 범행의 세부 사항을 신중히 구상하거나 사람을 위협할 흉기며 범행에 사용될 장비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놀라운 건 그런 모든 준비는 바로 그녀의 집 이층에서 행해졌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간밤의 사건뿐 아니라 훨씬 이전의 사건들, 그러니까 그녀가 발소리를 처음 확인했던 날부터 발생한 근처 주택가의 강도 사건은 그 상당수가 어쩌면 모두 그녀의 집에서 고안되고 짜인 계획이었을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갑자기 현기증을 일으켰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해바라기를 하듯 고개를 젖혔다.

그렇다면 그녀는 공범(共犯)이었다. 남편도, 다섯 살 난 아들도, 자취하는 계집애들도, 한결같이 **공범자들**이었다. **그들**이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방임해 두고 있는 완충 지대(緩衝地帶)에서** 그 끔찍한 범죄는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고, 그 독버섯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로 그들 자신이었다. 분명히 그녀들은 어떤 음모를 묵인하고 있었고 그 범죄에 결과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셈이었다.

(중략)

"별일 없었지?"

남편은 마루에 가방을 쿵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턱없이 힘이 들어가 있는 음성이 그녀에겐 서투른 삼류 배우의 대사처럼 어색하게 들렸다.

"어제도 들어왔었어요. 다른 일은 없었구요, 물론."

"뭐라구?"

아아니, 신고는 했어? 그랬더니 뭐래? 도대체 그 작자들은 뭘 하는 게야. 안 되겠어. 이번엔 단단히 따져야겠어. 전번에도 내가 좀 어쨌드니 뭐, 그래도 도난당한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잖소, 이러드라구.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이럴 수가 없는 거야. 허, 참 기가 맥혀서 원.

남편은 무섭게 흥분한 사람마냥 쨍쨍 악을 썼다. 서슬에 놀라 아들은 숟가락을 빨며 구석으로 밀려나 울먹울먹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잘 안다. 오늘 그녀가 그랬듯 남편은 큰소리 한 번 치지 못해 보고 되돌아올 줄을. 그가 아무리 대문을 발로 차고, 옷을 풀어 헤치고, 넥타이를 헝클어뜨린 채 **언성을 높이며 갖가지 호기를 부리려 한다 해도** 결코 그 **서투른 연기를 숨길 수 없**으리라는 걸.

남편은 속이 거북해 견디기 힘든 모양이었다. 주량을 넘긴 탓에 가슴이 답답한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주먹으로 가슴팍을 쿵쿵 두들기기도 했다.

그녀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을 우두커니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문득 까닭 모를 혐오가 지그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고통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다는 잔인한 유혹이 가슴속에서 음험한 적의를 불러일으킬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렸다. 그렇지만 결국 그녀는 코끝이 찡해 오고 말았다.

[A] 남편은 괴로웠으리라. 그 오만한 침입자의 발소리가 마치 우리의 허약한 용기를 시험하려는 교활한 의도처럼 멸시하듯 조롱하듯 아무 거리낌 없이 **뚜걱뚜걱** 천장을 울릴 때마다 그것을 **용납해야 하는 스스로의 비굴함으로** 부끄러워하고 망가져 버린 가장(家長)의 한 가닥 자부심 때문에 **고통스러웠으리라**.

- 임철우, 「그들의 새벽」 -

27.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녀'의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 대해 불쾌해했다.
② '그녀'는 붉은 벽돌집에 강도가 침입하였다는 소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여자'를 찾아갔다.
③ '그녀'의 '남편'은 괴한이 훔쳐 간 세간살이를 되찾아 달라고 여러 번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했다.
④ '그녀'는 자신의 집 이층에서 여러 번 들려왔던 발소리가 누구의 발소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⑤ '그녀'는 붉은 벽돌집의 담을 기어 올라가는 강도를 자신이 목격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28. [A]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
②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③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다른 인물의 심리를 추측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 서술자가 의식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이야기 내부에 등장하는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29. 윗글의 표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강도 사건'은 '그녀'의 심리적 불안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육중한 철대문'은 '그녀'가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책임감을 상징하고 있다.
③ '어떤 음모'는 '그녀'의 집 이층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그녀'가 상상한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④ '삼류 배우의 대사'는 남편의 말이 부자연스러워 어색하다고 여기는 '그녀'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⑤ '잔인한 유혹'은 남편에 대한 '그녀'의 혐오감이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그들의 새벽」은 도시 변두리의 단독 주택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소재로 한다. 작가는 사건의 폭력성을 부각하기보다 사건에 대한 인물의 대응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1980년대 억압과 폭정의 사회적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심리적 정황을 보여 준다. 작가는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 불의에 용기 내지 못하는 소시민의 허약함을 비판하는 한편, 이러한 방관자적 삶의 태도로 인해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죄책감과 부채 의식 등의 심적 고통을 그리고 있다.

① '그녀'가 '우람한 양옥'을 볼 때마다 느끼던 '질투심'이나 '아니꼬움'이 아닌 '은밀한 죄책감'을 느꼈다는 것에서, 권력층에 비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이 덜하다고 여기는 소시민의 허약함을 발견할 수 있군.
② '그녀'가 자기 집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협력한 '공범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현실의 문제에 대해 알면서도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죄책감과 부채 의식을 엿볼 수 있군.
③ '그들'이 '방임해 두고 있는 완충 지대에서' 범죄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고 한 것에서, 불의에 맞서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군.
④ '남편'의 모습이 '언성을 높이며 갖가지 호기를 부리려 한다 해도' '서투른 연기를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표현된 것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용기 내지 못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군.
⑤ '남편'에 대해 '뚜걱뚜걱' 울리는 발소리를 '용납해야 하는 스스로의 비굴함으로' '고통스러웠으리라'라고 묘사한 것에서, 방관자적 삶에 뒤따르는 소시민의 심적 고통을 짐작할 수 있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울리나 / 날으는 새여
묶인 이 가슴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이 흐르네 /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여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 가는

넋 속의 저 짧은
여위어 가는 저 짧은 볕발을 / 스쳐 떠나가는 새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울리나 /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묶인 이 가슴

- 김지하, 「새」 -

(나)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올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숯덩이만 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 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펑펑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쪼그마한 숯덩이만 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 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때죽나무와 때 끓이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 백색의 계엄령.

- 최승호, 「대설주의보」 -

* 계엄령 :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는 일인 '계엄'의 실시를 선포하는 명령.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② 감탄사를 사용하여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명사로 시상을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④ 감각의 전이를 활용하여 미래에 대한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의태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3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과 달리 과거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공간이다.
② ㉡은 ㉠과 달리 고립과 단절로 인한 시련의 공간이다.
③ ㉡은 ㉠과 달리 현실과 대조를 이루는 자연적 공간이다.
④ ㉠과 ㉡은 모두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난 자유의 공간이다.
⑤ ㉠과 ㉡은 모두 생명체와 화합을 이루는 상생의 공간이다.

33.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의 1연에서는 '저'가 반복적으로 쓰이면서 화자와, 화자가 바라보는 자연물 간의 거리를 부각하고 있다.
② (가)의 3연의 '너'는 '새'를 의인화한 것으로, '우러러'를 통해 '땅을 기는 육신'이 지향하는 대상임을 나타내고 있다.
③ (가)의 5연은 1연의 내용에 '떠나가는', '덧없는' 등의 시어를 추가함으로써, 화자의 절망감을 강조하고 있다.
④ (나)의 1연의 '굴뚝새'와 '날아간다'를 3연에서 '꺼칠한 굴뚝새'와 '날아온다'로 변주함으로써, 나약한 존재가 연대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⑤ (나)의 2연과 3연의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에서 '내리는'은 '눈'이 내리는 것과 '계엄령'이 내려지는 것의 중의적 의미로 해석되면서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대비를 이루는 이미지를 통해 자유가 억압된 당시의 정치 상황을 드러내면서 이에 대한 화자의 사회적 인식을 표출한다. (가)는 1970년대 강압적 권력에 저항하다 감옥에 갇힌 화자가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서 느끼는 암담함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새와 화자 자신의 대비를 통해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나)는 굴뚝새를 위협하는 백색의 눈[雪]의 의미를 점차 구체화해 가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민중의 생존을 위협했던 1980년대 신군부의 폭압적인 정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① (가)의 '묶인 이 가슴'은 강압적인 권력에 저항하다 감옥에 갇힌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군.
② (가)의 '밤새워 물어뜯'는 행위는 자유를 갈망하는 처절한 모습을, '썩은 피'는 현실적으로 좌절된 갈망을 나타낸 것이군.
③ (나)의 '눈'은 '굵은 눈발'에서 '힘찬 눈보라의 군단'으로 점차 강하고 세찬 느낌을 주는 시어로 구체화되면서, 당시 신군부의 폭압적인 정치 상황을 부각하고 있군.
④ (나)의 '부리부리한 솔개'와 '굶주리는 산짐승'은 힘없는 민중을 억압하는 세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군.
⑤ (가)는 '시뻘건 몸뚱어리'와 '푸르른 저 산맥'에서, (나)는 '해일처럼 굽이치는'과 '쪼그마한 숯덩이만 한'에서 대비되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이투스에듀

[35~37]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맡은 ○○○입니다. 여러분, 지난 과학 시간에 배운 물리 법칙 기억하시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반사의 법칙과 전반사, 굴절의 법칙이었죠. 이런 물리 법칙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에 적용된다는 것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저는 오늘 자동차에 적용된 물리 법칙 중 빛의 법칙에 대해 발표해 보려 합니다.

먼저 자동차 앞부분을 보시죠. (㉠자료 제시) 자동차 앞부분에는 전조등, 차폭등, 안개등 등 여러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중 가장 위에 있는 등이 바로 전조등입니다. 전조등에는 상향등과 하향등이 나란히 장착되어 있는데요, 두 등은 유사한 구조를 지니며 같은 종류의 전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상향등은 하향등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빛을 쏘아 보내는데 이것은 전구의 설치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전조등은 전구의 빛이 오목한 반사판에 반사되어 자동차의 전방으로 진행되도록 합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배운 반사의 법칙 기억나시죠? 이 a, b 선이 입사광, a′, b′선이 반사광이라면 여기 이 점선은 무엇일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바로 법선입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으므로 전구를 A에 설치하면 반사판에서 나온 빛은 수평 방향으로, B에 설치하면 빛은 바닥을 향해 기울어지게 됩니다. 상향등은 A에, 하향등은 B에 장착한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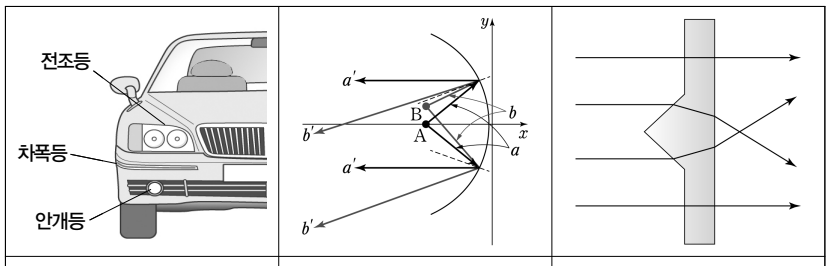
다음은 자동차의 뒷부분에 설치된 후미등입니다. 여러분, 매질에 따라 입사하는 빛의 꺾이는 각도가 달라진다는 법칙이 뭐였죠?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굴절의 법칙입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후미등의 덮개 단면을 보면 위아래 쪽은 매끈한 반면 가운데 쪽에는 돌기가 나 있는데요, 빛이 조사되면 매끄러운 부분은 빛이 그대로 통과하지만 돌기 부분은 굴절이 일어나 넓게 퍼집니다. 그런데 후미등은 켜지 않아도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오면 마치 후미등을 켠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덮개 안쪽에 있는 돌기의 각도를 잘 조절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두 번 굴절하여, 마치 거울에 반사된 것처럼 그대로 다시 빛이 들어온 방향으로 되돌아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등뿐만 아니라 바퀴, 제어 장치 등에도 많은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평소 과학 시간에 배운 지식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찾아본다면 과학에 더욱 흥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5. 위 발표자의 발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보의 출처를 제시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② 청중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제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③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점검하며 발표를 마무리한다.
④ 발표 순서를 언급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한다.
⑤ 질문을 통해 청중의 배경지식을 환기하여 발표 내용의 이해를 돕는다.

36.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자료 1] [자료 2] [자료 3]

① [자료 1]은 자동차의 앞부분에 부착된 여러 등의 설치 위치와 각각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② [자료 2]는 반사각의 초점을 조절하는 방식에 따라 전조등의 종류가 결정됨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③ [자료 2]는 상향등과 하향등에서 나오는 빛의 방향이 다른 이유를 반사의 법칙으로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④ [자료 3]은 후미등을 켰을 때와 켜지 않았을 때의 기능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⑤ [자료 3]은 후미등에 반사의 법칙과 굴절의 법칙이 모두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37.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생 1 : 매일 보는 자동차에 물리 법칙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유익했어. 그런데 발표 앞부분에서 말한 전반사에 대해서도 사례를 통해 제시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학생 2 : 아버지는 운전 중에 반대 차선에서 자동차가 오면 상향등을 잠시 끄셨는데, 수평으로 향하는 상향등이 마주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까 봐 그러셨던 거구나. 그런데 안개등도 상향등처럼 밝은 걸로 아는데 왜 안개등은 반대 차선에서 자동차가 와도 그대로 두는지 인터넷을 통해 찾아봐야겠어.
학생 3 : 후미등은 켜지 않아도 빛이 나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좋았어. 도로에 있는 경계봉도 빛이 닿으면 스스로 밝아지는데, 이것도 후미등에 적용된 것과 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된 것 같아.

① 학생 1은 발표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생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탐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③ 학생 3은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④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에서 언급한 내용이 맞는지 실생활에서 확인해 보려 하고 있다.

[38~42] (가)는 학생이 학교 신문에 투고한 글이고, (나)는 이와 관련하여 학생회 임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개방 학습이 끝날 쯤이 되면 교문 앞부터 수십 대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한 채 일렬로 주정차되어 있다. 개방 학습을 마친 학생들을 기다리는 학부모들의 자가용이다. 꼬리를 물고 무단으로 주정차한 학부모들의 차량과 차에 타기 위해 도로까지 나온 학생들, 그리고 혼잡한 도로를 빠져나가려는 차량들로 인해 밤 10시, 학교 앞 도로는 홍역을 치른다.

문제는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함뿐만이 아니다.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한 차량들 때문에 학교 앞 정류장에 정차해야 할 버스가 정류장이 아닌 도로 가운데 정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버스를 타는 학생이나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 모두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달 버스 정류장에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도로 가운데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던 아주머니가 지나가는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심각한 인명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이보다 더 큰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가용을 이용한 하교를 전면 금지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자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단속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와, 단속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을 고려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자가용을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속보다는 학교 측에서 학부모들에게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부모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편과 불만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학생 1 : 이번에 학교 신문에 실린 글과 관련해서 학교 측에서 교내 주차장을 학부모들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대.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학생회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구체적 방법을 논의해서 찾아보기로 했어. 오늘 함께 얘기해 보자.

학생 2 : 우리 학교 주차장이 넓은 편이긴 하지만, 개방 학습 후 교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 교내 주차 공간만으로 충분할까?

학생 1 : 학교에서 개방 학습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한 걸 보니, 자가용을 이용해 하교하는 학생이 50여 명 정도여서 교내 주차 공간을 개방하면 주차 문제는 해결될 걸로 보여.

학생 3 : 그 정도면 교내 주차 공간 개방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 그런데 교내 주차 공간을 개방하면 학부모가 아닌 외부인이 출입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또 학부모의 차량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하고 통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A]

학생 2 : 학부모의 차량만을 대상으로 시간제한을 두고 출입하게 하면 외부인과 관련된 안전사고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문제는 학부모의 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아파트의 주차 스티커처럼 개방 학습을 하는 학생들 중 교내 주차를 신청한 학생들에게 교내 주차 스티커를 발부해 주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학생 1 : 글쎄, 주차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해도 이를 확인하고 통제하는 등 관리 차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차라리 무인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 보자.

학생 3 : 무인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비용 문제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워 보여. 주차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니 우선 주차 스티커를 활용해 보고, 주차 스티커만으로 통제가 어렵다면 그때 무인 주차 차단기 설치를 논의해 보는 게 좋겠어.

[B]

학생 1, 2 : 그래, 그게 좋겠다.

학생 2 : 근데 우리 학교 주차장 구조가 좀 복잡해서 처음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헤매더라고.

학생 1 : 그럼 학교 주차장 구조와 주차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을 만들어 교내 주차를 신청한 학생들에게 배부하자.

학생 3 : 좋은 생각이야. 안내문을 만들 때 주차장 내부는 일방통행이라는 것을 화살표로 표시해서 알려 주고, 차 모양의 그림을 이용해서 주차장이 차가 서로 마주 보고 사선으로 주차하는 구조로 돼 있음을 표시하자.

학생 2 : 그리고 체육관 앞의 주차장은 주차 폭이 넓으니 SUV 같은 대형 차량은 체육관 앞에 주차하라고 알려 주는 것도 좋겠어.

학생 1 : 좋아. 참, 주차가 가능한 시간도 안내문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 개방 학습 종료 시간인 10시 전후 각 30분씩이면 어때?

학생 3 :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개방 학습 종료 전후 각 1시간 정도씩은 돼야 하지 않을까?

학생 2 : 맞아, 시간을 촉박하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아. 또 주차 가능 시간과 함께 주차 스티커를 발부받는 방법도 추가해서 안내문에 넣도록 하자.

학생 1 : 주차 스티커는 안내문과 함께 배부될 테니, 안내문에는 추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학생 3 :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으로 내가 [회의록]을 작성할게.

학생 1, 2 : 고마워.

38. (가)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문단에서 학교 앞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의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② 2문단에서 학교 앞 교통 혼잡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을 인과의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③ 2문단에서 학교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서술하였다.
④ 3문단에서 최근 들어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이 점점 늘어나는 원인을 나열의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⑤ 3문단에서 자가용을 이용한 하교를 전면 금지하는 것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대조의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39. <보기>는 (가)의 마지막 문단의 초고이다.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해 친구들이 조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자가용을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교 앞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이 늘고 있다. 차라리 학부모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학교에서 확보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 될 수 있다.

① 문제를 해결할 주체를 밝히는 게 어때?
② 기존에 제기된 방안이 무엇인지 모두 언급하는 게 어때?
③ 기존에 제기된 방안이 갖는 한계를 언급하는 게 어때?
④ 새롭게 제기한 방안에 따른 기대 효과를 제시하는 게 어때?
⑤ 새롭게 제기한 방안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책임을 드러내는 게 어때?

40.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에서 '학생 1'은 '학생 2'가 제기한 의문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들어 답하고 있다.
② [A]에서 '학생 3'은 '학생 1'이 제기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분석하고 있다.
③ [B]에서 '학생 1'은 '학생 2'가 제안한 방안이 갖는 한계를 언급한 후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④ [B]에서 '학생 2'는 자신이 제안한 방안에 대한 '학생 1'과 '학생 3'의 의견을 묻고 있다.
⑤ [B]에서 '학생 3'은 '학생 1'의 의견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 후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41. (가)와 (나)를 고려할 때, '학생 3'이 쓴 회의록의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시 : 2023. 1. ◇◇.	장소 : 학생회 회의실
회의 주제 : 교내 주차 공간의 운영 방법 수립	
논의 내용 : 교내 주차 공간의 효율적 운영 방법에 대한 논의	
예상되는 문제점	학부모의 차량이 아닌 외부인의 차량이 출입할 경우 교내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①
	학부모 차량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확인하며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 ····· ②
실행 방안	학부모 차량만을 대상으로 시간에 제한을 두고 교내 주차 공간을 개방한다. ····· ③
	개방 학습 참여 학생의 학부모 중 교내 주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내 주차 스티커를 발부한다. · ④
	장기적으로 차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무인 주차 차단기의 설치를 추진한다. ·····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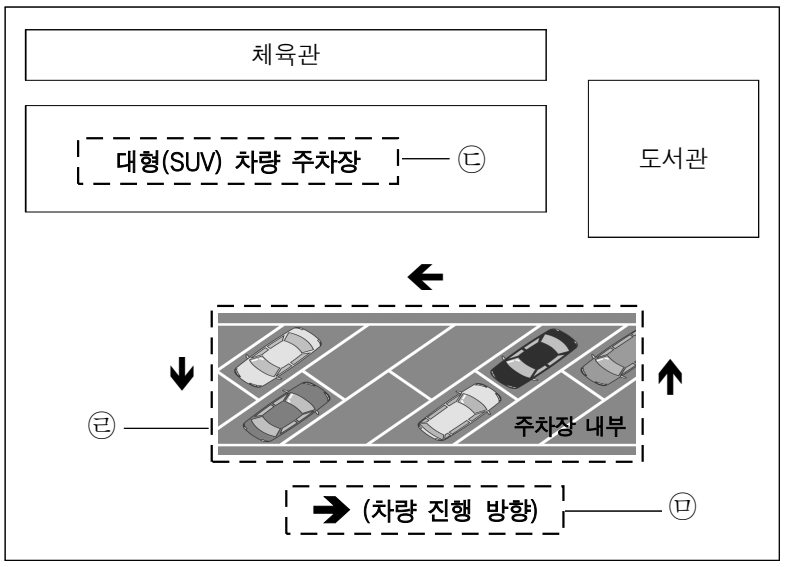
42. 다음은 (나)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만든 안내문 초안이다.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내 주차장 개방 안내문>

본교에서는 개방 학습 후 학교 앞 교통 혼잡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내 주차장을 개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내 주차장 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안내 사항 -

1. 대상 : 개방 학습 신청 학생 중 교내 주차를 신청한 학생의 학부모
2. 주차장 개방 시간 : 21:30~22:30 ㉠
   ㉡



- ◇◇ 고등학교 -

① ㉠ : 학부모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이 논의된 시간과 다르므로 주차장 개방 시간을 '21:00~23:00'로 수정해야겠군.
② ㉡ : 주차 스티커를 발부받는 방법을 추가하여 안내하기로 했으므로 해당 내용을 안내 사항의 항목 '3'으로 추가해야겠군.
③ ㉢ : 체육관 앞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알려 주고 있으므로 논의한 내용이 반영되었군.
④ ㉣ : 차량 모양의 그림을 이용하여 차량의 주차 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논의한 내용이 반영되었군.
⑤ ㉤ : 화살표를 이용해서 주차장이 일방통행임을 표시했으므로 논의한 내용이 반영되었군.

[43~45] 다음은 교지에 싣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껌을 씹으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며, 졸음을 깨울 수 있고 구취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껌을 즐겨 씹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씹는 껌을 잘못 버리게 되면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껌은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원래 껌은 '치클'이라는 천연고무로 만들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껌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은 대부분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바이닐아세테이트로 껌을 만든다. 따라서 씹은 껌을 길바닥에 뱉는 것은 사실상 플라스틱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

바닥에 버려진 껌은 길바닥에 붙어 껌 딱지가 되는데 새들이 바닥에 붙은 껌 딱지를 먹이로 오해하고 먹어 질식해 죽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껌 딱지는 점점 마모되다가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이것이 비나 하수 등을 통해 강과 바다로 유입되면 해양 생태계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함부로 버려진 껌은 이렇게 동물과 자연환경 모두에게 해로운 만큼 껌을 길바닥에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버려지는 껌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버려진 껌을 수거해 세척한 후 분쇄와 혼합 과정을 거친 뒤 스케이트보드 바퀴, 장화 등을 만드는 재료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까지 고려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버려진 껌의 재활용은커녕 수거에조차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A]

43. 다음은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u>않은</u> 것은?

○ 버려진 껌이 재활용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겠어. …… ㉠
○ 껌을 즐겨 씹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제시해 관심을 유도해야겠어. …… ㉡
○ 껌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가 통념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야겠어. …… ㉢
○ 껌을 함부로 버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들을 제시해야겠어. … ㉣
○ 껌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조 단계와 소비 단계로 나누어 설명해야겠어. …… ㉤

① ㉠ ② ㉡ ③ ㉢ ④ ㉣ ⑤ ㉤

44. 다음은 초고를 읽은 교지 편집부 학생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A]를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비유를 활용하여 초고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점을 다시 부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개인적·사회적 노력의 차원에서 각각 언급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

① 무심코 길바닥에 버린 껌은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우리의 몸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길가에 함부로 껌을 버려서는 안 된다.
② 씹었던 껌은 다른 제품을 만드는 데 재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껌을 지정된 곳에 버리는 개인적 노력과 버려진 껌을 쉽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모두 필요하다.
③ 길바닥에 버려진 껌을 수거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껌을 길바닥에 버리기 전에 수거해 재활용한다면 환경 보호와 사회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이다.
④ 동물의 생명과 자연에 해충처럼 해를 끼치는 껌 딱지, 우리는 씹던 껌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버려지는 껌을 수거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⑤ 껌의 소비량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껌을 제대로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도로는 껌 딱지 군단에게 점령될 것이다. 껌으로부터 우리의 도로를 지키려는 노력에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한다.

45. <보기>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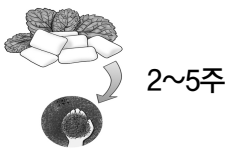
(가) 전문가 인터뷰

"지구에서 1년간 생산된 껌은 25만 톤 정도로 이 중 80~90%는 길바닥이나 담벼락 밑에 버려집니다. 이는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해양으로 흘러드는데 해양 생물이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생물의 몸에 남아 그 해양 생물을 섭취한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 연구 보고서 자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껌의 자연 분해에 걸리는 시간〉

〈치클로 만들어진 껌의 자연 분해에 걸리는 시간〉



(다) 신문 기사

프랑스에는 '껌 콜렉트'라는 껌 수거 캠페인이 있다. 이는 길거리와 공원 등에 설치된 껌 수거판을 통해 씹었던 껌을 모으는 것으로, 수거된 껌은 플라스틱으로 재가공된다. 그리고 영국의 한 기업은 버려진 껌을 분해할 수 있는 촉매제를 개발하였다. 기존에는 수거한 껌을 플라스틱으로 재생하는 과정에서 열과 압력을 가해야 했기에 온실 가스의 배출을 피할 수 없었으나 껌을 분해할 수 있는 촉매제가 개발됨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① (가) : 1년간 생산된 껌의 양과 쓰레기통이 아닌 다른 곳에 버려지는 껌의 비율을, 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각하는 자료로 2문단에 추가한다.
② (가) : 길바닥에 버려진 껌이 마모되면서 생기는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함부로 버려진 껌이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로 3문단에 추가한다.
③ (나) :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껌과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껌이 자연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의 차이를, 천연 재료로 만들던 껌을 플라스틱을 재료로 하여 만들게 된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로 2문단에 추가한다.
④ (다) : 씹었던 껌을 캠페인을 통해 수거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버려진 껌의 수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와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문제 상황을 부각하는 자료로 4문단에 추가한다.
⑤ (다) : 온실 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수거한 껌을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업사이클링 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까지 고려하는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 4문단에 추가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이투스에듀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접사와 어미는 단독으로는 실현되지 못하고 다른 요소에 덧붙어서 실현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접사와 어미는 사전에 표제어로 올릴 때 다른 말과 결합하는 부분에 붙임표를 붙여, 단독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다른 요소에 덧붙어서 실현된다는 것을 표시한다.

접사는 어근에, 어미는 어간에 결합한다. 용언의 경우 어간과 어근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활용에 관여하는 것은 어간이고 조어에 관여하는 것은 어근이다. 가령 '먹다'에서 어간은 '먹-'이고, '먹이다'에서 어간은 '먹이-'이다. 어간 '먹-'은 단일어의 어근으로 하나의 형태소이지만, 어간 '먹이-'는 어근 '먹-'에 접사 '-이-'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형태적으로는 같은 것으로 보이는 '먹-'이지만 활용의 관점에서 '먹-'은 어간이고, 조어의 관점에서 '먹-'은 어근인 것이다.

접사와 어미는 그 기능에서 더욱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차이는 새로운 단어의 생산 여부이다.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지만, 어미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접사가 결합된 단어는 새로운 단어가 되어 사전의 표제어로 오를 수 있지만, 어미가 결합된 단어는 활용을 할 뿐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형 외에는 사전의 표제어가 될 수 없다. 또한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근의 품사 범주를 바꾸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미는 어간의 품사 범주를 바꾸지 못한다. '이런'과 같이 용언의 활용형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품사까지 바뀐 경우가 있기도 하나, 이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한편 어원적으로는 접사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접사로서의 기능을 잃고 더 이상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부사 '자주'는 어원적으로는 '잦다'에서 나온 어근 '잦-'에 부사 파생 접사인 '-우'가 결합한 파생어인데, '-우'는 현대 국어에서 더 이상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한다. 이 경우 '잦우'로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의 표제어에도 붙임표를 붙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 '-아', '-웅'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는 명사 '지붕'(집+-웅)처럼 단어의 의미가 어근의 본뜻과 관련이 깊은 경우도 있지만, 조사 '조차'(좇-+-아)처럼 단어의 의미가 어근의 본뜻과는 멀어진 경우도 있다.

35.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입고'의 '입-'은 활용의 관점에서 어간에 해당하겠군.
② '지우개'에서 분석되는 파생 접사의 뜻풀이는 사전의 표제어 '-개'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③ '걷다'의 어간 '걷-'에 명사형 전성 어미 '-(으)ㅁ'이 결합된 '걸음'의 뜻풀이는 사전의 표제어 '걸음'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④ '깊이'는 '깊다'에서 나온 어근에 접사 '-이'가 결합하여 단어의 품사 범주가 어근의 품사 범주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겠군.
⑤ '다른 데서 놀아라.'의 '다른'은 '이런'과 마찬가지로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에 해당하겠군.

36. 윗글과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만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1>

다음은 '무덤'이 쓰인 문장과 '무덤'의 어원이 되는 용언이 쓰인 문장의 쌍이다.

- 여기서 가까운 곳에 왕의 <u>무덤</u>이 있다.
- 죽은 벌레를 우리 집 화단에 <u>묻었다</u>.

<보기 2>

〔학습 활동〕 '무덤'에 대해 분석한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자.

분석 내용	판단
'무덤'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무-덤'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렇다. …… ㉮
'무덤'은 단어의 의미가 어근의 본뜻과 멀어진 경우이다.	그렇지 않다. …… ㉯
어원적으로 '무덤'의 구성 성분에 접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 …… ㉰
'무덤'에 사용된 접사가 현대 국어에서도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그렇다.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7. <보기>의 ㉠~㉤을 통해 중세 국어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 <u>불휘</u> 기픈 남ᄀᆞᆫ ㉡ <u>ᄇᆞᄅᆞ매</u> 아니 뮐씨 ㉢ <u>곶</u> 됴코 ㉣ <u>여름</u> 하ᄂᆞ니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습니다.)
ᄉᆡ미 기픈 ㉤ <u>므른</u> ᄀᆞᄆᆞ래 아니 그츨씨 내히 이러 바ᄅᆞ래 가ᄂᆞ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으므로 냇물이 이루어져 바다에 흘러갑니다.)
-「용비어천가」 제2장 -

① ㉠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체언이 자음으로 끝날 경우 조사를 붙이지 않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 이어 적기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 예사소리였던 것이 현대 국어에서 된소리가 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을 통해, 중세 국어의 어휘가 현대 국어의 어휘와 형태가 같더라도 뜻은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 평순 모음이었던 것이 현대 국어에서 원순 모음이 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8. <보기>는 표준 발음법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ㅎ'의 발음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ㄶ, ㅀ)'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 ㉠
   [붙임 1] 받침 'ㄱ(ㄺ), ㄷ, ㅂ(ㄼ), ㅈ(ㄵ)'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ㅋ, ㅌ, ㅍ, ㅊ]으로 발음한다. ····· ㉡
   [붙임 2]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ㅅ, ㅈ, ㅊ, ㅌ'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
2. 'ㅎ(ㄶ, ㅀ)'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ㅆ]으로 발음한다. ····· ㉣
3.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 ㉤
   [붙임] 'ㄶ, ㅀ'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 ㉥
4. 'ㅎ(ㄶ, ㅀ)'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 ㉦

① '배를 앓고 있는 이가 숱하다.'의 '앓고'는 ㉠의 적용을 받아 [알코]로, '숱하다'는 ㉡의 적용을 받아 [수타다]로 발음해야겠군.
② '맏형이 옷 한 벌을 해 주었다.'에서 '맏형'은 ㉡의 적용을 받아 [마텽]으로, '옷 한 벌'은 ㉢의 적용을 받아 [오탄벌]로 발음해야겠군.
③ '다리를 놓는 사람이 많다.'에서 '놓는'은 ㉤의 적용을 받아 [논는]으로, '많다'는 ㉠의 적용을 받아 [만:타]로 발음해야겠군.
④ '자네가 싫으니 자네 그림자도 보기 싫소.'의 '싫으니'는 ㉦의 적용을 받아 [시르니]로, '싫소'는 ㉣의 적용을 받아 [실쏘]로 발음해야겠군.
⑤ '정의롭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의 '않은'은 ㉦의 적용을 받아 [아는]으로, '않는'은 ㉥의 적용을 받아 [안는]으로 발음해야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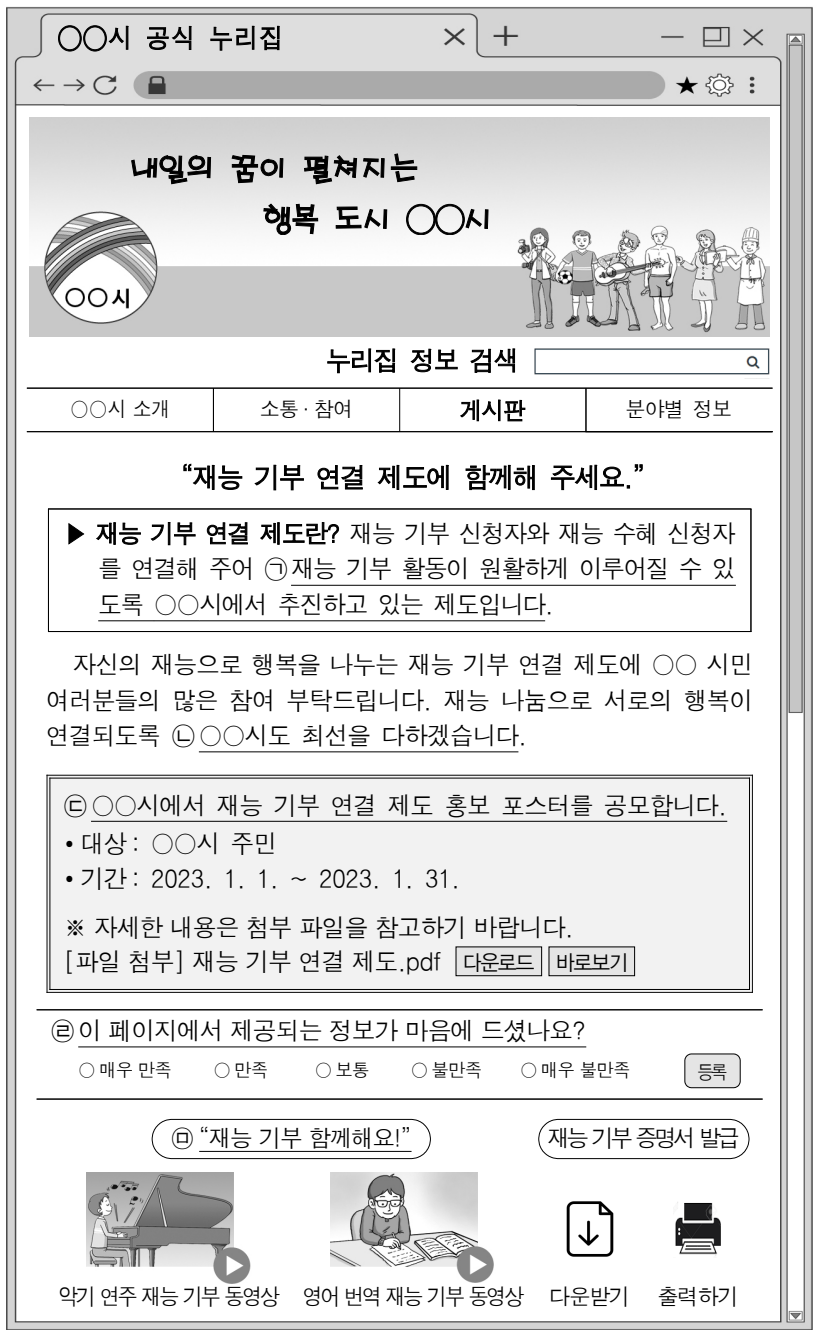
39.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냉장고에 있던 물이 얼음이 되었다.
㉡ 위층에 사는 할머니는 인심이 후하시다.
㉢ 지금 너는 그 일을 하기에 늦지 않았다.
㉣ 우리가 여행을 간 도시에서 축제가 열렸다.

① ㉠은 주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은 서술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② ㉠은 ㉢과 달리 보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③ ㉠과 ㉣에는 모두 안은문장의 주어를 수식하는 관형사절이 있다.
④ ㉢은 ㉡과 달리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있다.
⑤ ㉣은 ㉡과 달리 안은문장의 주어와 동일한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40~43] (가)는 ○○시 공식 누리집 화면의 일부이고, (나)는 학생들의 온라인 화상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주희 : 다 들어왔으니까 이제 화상 회의 시작할게.
경미, 영현, 용철 : 응, 그래.
영현 : 내가 오늘 회의록을 쓰기로 했는데, 회의를 녹화해서 나중에 참고해도 될까?
경미, 용철, 주희 : 응,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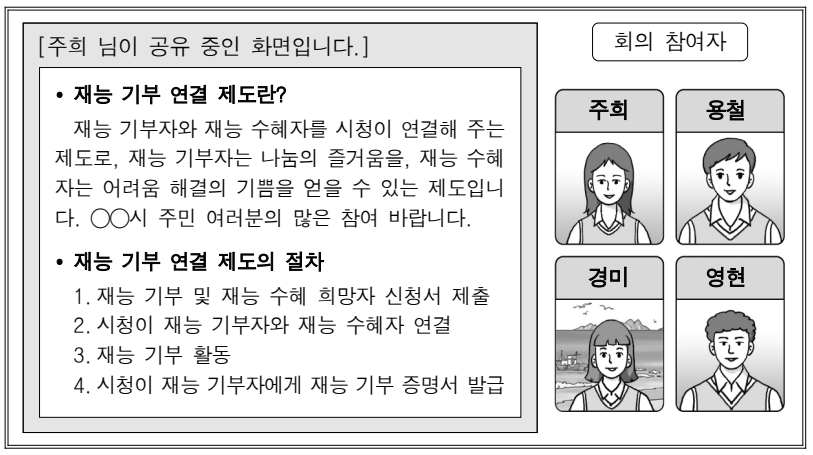
채팅	영현 님이 회의 녹화를 시작합니다.

주희 : 그런데 왜 이렇게 소음이 심하지? 목소리가 잘 안 들려.
용철 : 내가 아직 집에 도착하지 못해서 지금 이동 중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주희 :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도착할 때까지만 마이크 음소거 기능을 켜 줄래? 네 의견을 말할 때만 해제하고 말이야.
용철 :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마이크 음소거]**
주희 : 그런데 경미 뒤로 바다가 보이네, 어떻게 한 거야?
경미 : 사적인 공간이 노출되는 게 싫어서 배경 설정 기능을 이용해 배경 화면을 바꿨어.
주희 : 아! 그런 기능이 있었구나. 어떻게 하는 건지 나한테 메모로 전달해 줄래?

경미: 응, 여기! **[경미 님이 주희 님에게 메모 전달]**

주희: 고마워. 그럼 회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오늘은 재능 기부 연결 제도 홍보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지 논의하기로 했잖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내가 누리집에 있는 pdf 파일 중 필요한 내용을 발췌해 가져왔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포스터를 어떻게 구성할지 이야기하자.

채팅	주희 님이 화면 공유를 시작합니다.



영현: 시청이 재능 기부자와 재능 수혜자의 신청을 받아 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제도이니까 이들의 관계가 잘 나타나도록 화살표를 이용해 표현하면 어떨까?

용철: **[마이크 음소거 해제]**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그 절차도 잘 드러나도록 순서에 맞게 화살표에 번호를 붙여 주면 좋겠어. **[마이크 음소거]**

경미: 좋아. 이 제도는 재능 기부자와 재능 수혜자 모두에게 좋은 거니까, 재능 기부자와 재능 수혜자를 인물 캐릭터로 나타내고 두 인물 모두 밝은 표정을 짓는 것으로 표현하자.

영현: 그럼 시청은 어떻게 표현하지?

주희: ○○시의 마스코트가 거북이니까 그걸 이용하자.

경미: 응, 좋아. 그러면 거북이가 재능 기부 연결 제도 참여를 권유하는 것처럼 표현해 보자.

영현: 재능 기부 연결 제도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문구로 표현해서, 이 제도의 취지가 포스터에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주희: 좋아.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모두 반영해서 포스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자. 내가 시안을 만들어서 단체 대화방에 내일까지 올릴게.

40.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재능 기부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재능 기부 동참을 유도하고 있군.
② 파일 첨부 기능을 활용하여, 재능 기부 연결 제도의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웹 페이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군.
③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누리집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검색어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군.
④ 재능 기부 증명서 발급 메뉴를 제공하여, 증명서 파일이나 출력물이 필요한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군.
⑤ 만족도 표시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웹 페이지에 제공된 정보에 대해 만족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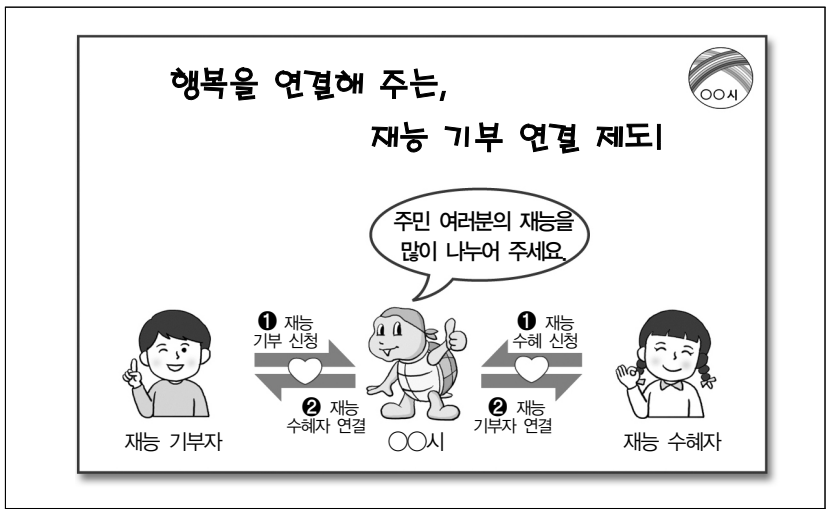
4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연결 어미 '-도록'을 사용하여 제도 시행의 목적을 표현하고 있다.
② ㉡: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행위 주체의 역할에 대한 추측을 표현하고 있다.
③ ㉢: 격 조사 '에서'를 사용하여 홍보 포스터를 작성할 주체가 단체임을 드러내고 있다.
④ ㉣: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⑤ ㉤: 종결 어미 '-아요'를 사용하여 행위의 객체가 되는 대상을 격식을 갖추어 높이고 있다.

42. (나)에 나타난 매체 활용 방식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영현'은 회의록 작성에 참고하기 위해 회의 녹화 기능을 사용해 회의 내용을 녹화하였다.
② '용철'은 소음으로 인해 소통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을 고려해 마이크 음소거 기능을 활용하였다.
③ '경미'는 자신의 사생활 공개를 제한하기 위해 배경 설정 기능을 이용해 배경 화면을 임의로 설정하였다.
④ '경미'는 메모 전달 기능을 사용해 정보를 요청한 참여자에게만 해당 정보를 전달하였다.
⑤ '주희'는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발췌한 자료를 화면에 공유해 참여자들이 자료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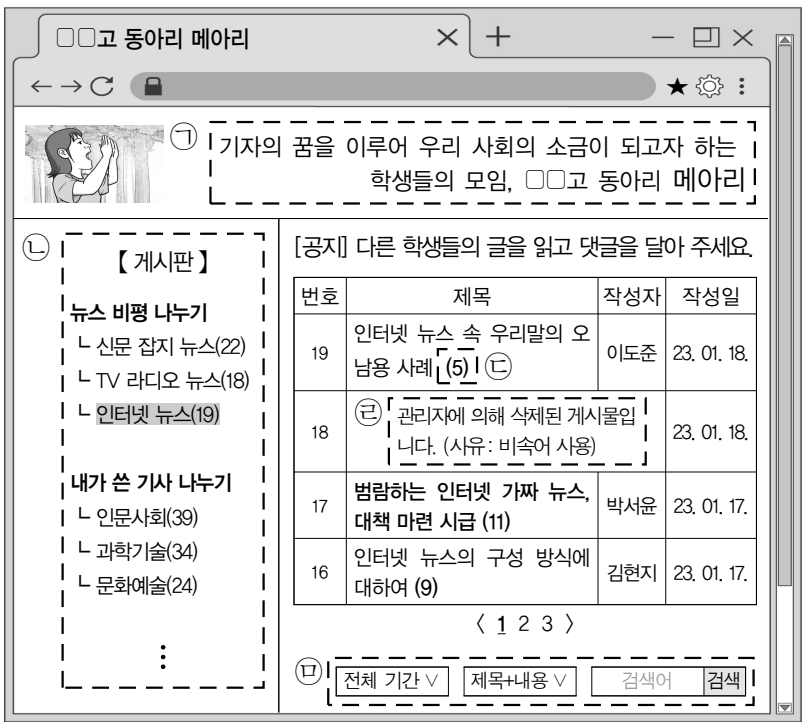
43. (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포스터를 만들었다고 할 때, 포스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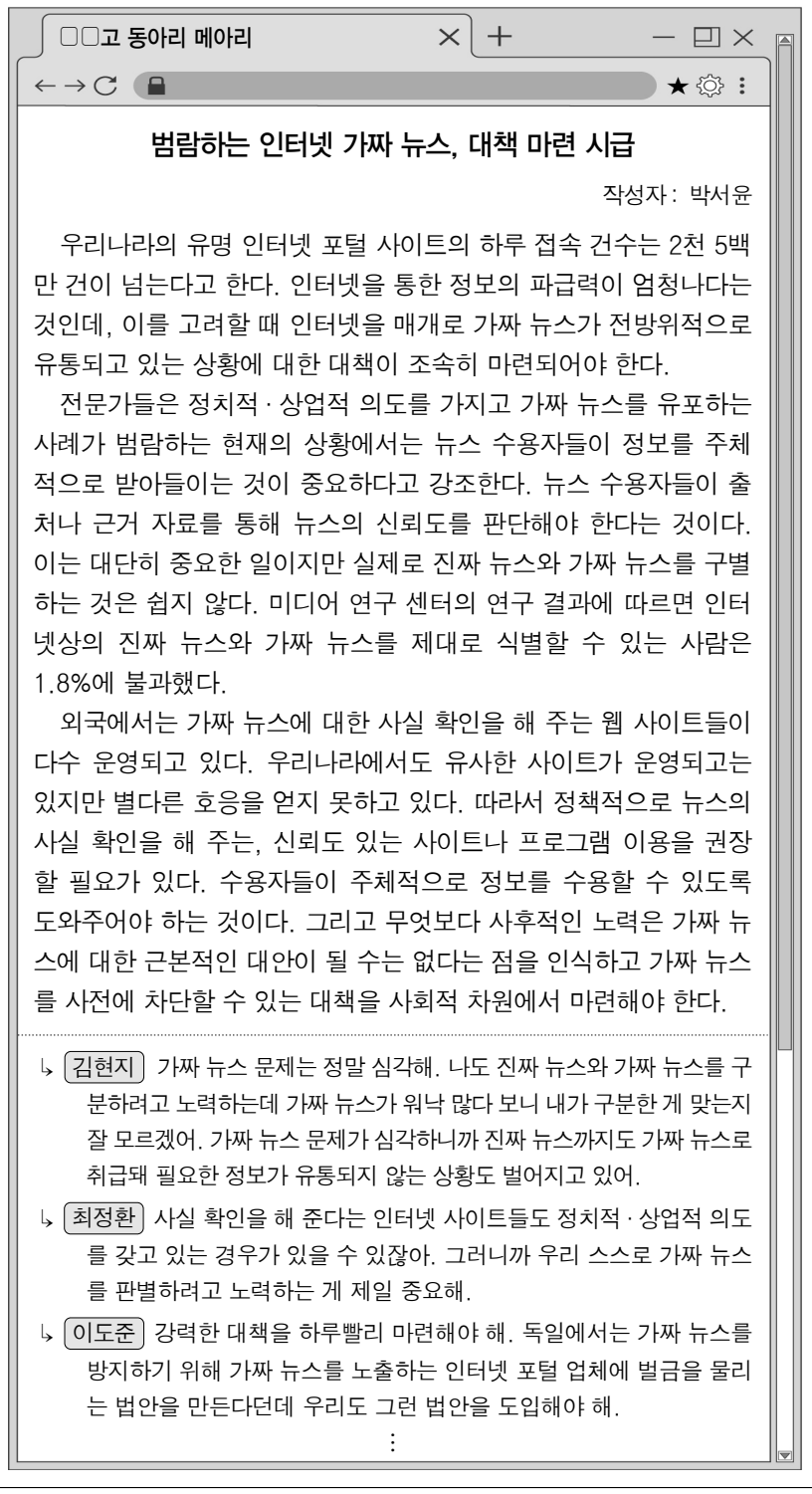
① '영현'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능 기부 연결 제도에서 시청의 역할과 기부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화살표를 사용하였다.
② '용철'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능 기부 연결 제도의 절차가 잘 드러나도록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를 사용하였다.
③ '경미'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능 기부자와 재능 수혜자를 밝은 표정을 한 인물 캐릭터로 표현하였다.
④ '주희'와 '경미'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를 상징하는 거북이 캐릭터가 재능 기부를 직접 권하듯이 말풍선을 제시하였다.
⑤ '영현'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재능 나눔의 취지가 잘 드러나도록 문구를 만들어 포스터 상단에 배치하였다.

[44~45] 다음은 온라인 카페 화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화면 1] (【게시판】에서 '인터넷 뉴스'를 클릭한 화면)



[화면 2] ([화면 1]에서 17번 게시물을 클릭한 화면)



44. <보기>를 바탕으로 [화면 1]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메아리' 동아리 온라인 카페 활동 규칙

개설 목적 : 뉴스에 대해 비평하고 관심 분야에 대한 기사를 써 보는 활동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기자가 되기 위한 역량을 기른다.

규칙 1. 뉴스를 비평하는 글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기사를 각 게시판의 성격에 맞게 올린다.
2. 동아리 활동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댓글을 통해 공유된 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한다.
3. 모든 글은 실명으로 작성하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① ㉠을 보니, '개설 목적'을 고려하여 동아리 구성원이 목표하고 있는 바를 비유적 표현을 통해 강조하여 제시하였군.
② ㉡을 보니, '규칙 1'을 고려하여 활동 과제에 따라 게시판을 나누고 게시판을 각각 뉴스의 유통 매체와 기사의 소재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였군.
③ ㉢을 보니, '규칙 2'를 고려하여 댓글 수가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군.
④ ㉣을 보니, '규칙 3'을 고려하여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이 동아리 구성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게시물을 삭제하였군.
⑤ ㉤을 보니, '개설 목적'을 고려하여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검색창을 제시하였군.

45. [화면 2]를 바탕으로 '가짜 뉴스'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수용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박서윤'은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하루 접속 건수를 근거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② '최정환'은 '박서윤'과 달리 가짜 뉴스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으므로 뉴스 수용자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③ '김현지'는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상황이 문제라고 여기는 '박서윤'의 생각에 공감하면서 이에 덧붙여 진짜 뉴스까지 가짜 뉴스로 취급되는 상황도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④ '김현지'는 뉴스 수용자들이 정보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박서윤'의 생각이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판단하였지만 '최정환'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하였다.
⑤ '이도준'은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박서윤'의 생각에 동의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짜 뉴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